

7월 1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1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돌아온 은행주`..다우 2.27%↑	뉴욕증시가 급등세를 보였음. 주요 지수들이 2% 이상 오른 가운데 S&P 500 지수가 900선을 다시 회복했고 오랜만에 은행주가 증시 상승을 주도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85.16포인트(2.27%) 급등한 8,331.6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7.18포인트(2.12%) 상승한 1,793.21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1.92포인트(2.49%) 상승한 901.05를 각각 기록했음. 이날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시작,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 하루중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음. 개장초부터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월가의 족집게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메리디스 휘트니가 골드만삭스를 매수 추천하고, 은행업종의 추가 상승을 예고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 미국의 20대 은행인 CIT그룹이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으로 급락했지만,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CIT그룹 처리에 자신감을 보임에 따라 CIT그룹 문제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
은행주 강세..족집게 애널리스트 골드만삭스 `매수` 추천	월가의 유명 여성 애널리스트인 메리디스 휘트니가 설립한 메리디스 휘트니 어드바이저 그룹은 이날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음. 메리디스 휘트니 어드바이저는 골드만삭스의 목표주가를 186달러로 제시했음. 이는 지난주말 종가 141달러 대비 24%나 높은 수준임. 이같은 `매수` 추천에 힘입어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5% 이상 올랐음. 특히 메리디스 휘트니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주가가 은행종목중 가장 싸다고 언급, BoA의 주가도 9%대의 급등세를 보였음.
美 재무장관 "경기회복세 곧 시작된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3일 런던에서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 관련 리스크가 상당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과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음. 가이트너는 매우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세계 경제는 향후 2분기에 걸쳐 회복세로 돌아서기에 `충분한 가능성(a good chance)`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올 3~4분기에는 세계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임.

제목	주요 내용
혼다, 무너진 하이브리드 아성 되찾는다	혼다는 내년 자사의 소형차 `피트(Fit)`의 하이브리드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며, 2월엔 스포츠 차량 `CR-Z`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예정. 도요타는 지난 5월 3세대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일본 내 하이브리드차 가운데 인기 모델이었던 혼다의 `인사이트`를 따라 잡았음. 치바-긴 에셋 매니지먼트의 오쿠무라 요시히로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하이브리드차 공략을 공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미국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들은 잘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혼다는 내년 3월말로 끝나는 2009 회계연도 전세계 자동차 판매가 321만대로 한 해 전에 비해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중동방항공-상하이항공 합병 본궤도	13일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와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동방항공은 주식교환을 통해 90억위안(13억달러)에 상하이항공을 인수키로 했음. 주식교환비율은 상하이항공 1주당 동방항공 신주 1.3주의 비율로 지난달 5일 상하이항공 종가에 17%의 프리미엄이 더해져 산출됐음. 이와 별개로 동방항공은 10개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70억위안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
OECD "한국 경기회복 본격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CL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월 CLI는 99.8로 전달의 97.6보다 1.8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90.2에서 6개월 연속 상승. 이는 OECD 회원국의 5월 평균 상승치인 0.8포인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이로써 한국의 CLI는 4개월 연속 OECD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4월(99.9) 이후 최고 수준.
SK건설, 3200억원 재건축·재개발 잇따라 수주	SK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노원구 `월계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음.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42억원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7만6790㎡부지에 지하2층~지상26층 17개동 아파트를 짓게 됨. 조합원 분양분 572가구, 임대아파트 229가구, 일반분양분 458가구 등 총 1259가구(55~167㎡)가 들어설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